

amagram

Success Partner for a Better Life

Thanks to Beloved

Gift to grateful people 진심어린 마음 한 조각 '선물'

For the health of family 우리가족 겨울철 건강관리, 고혈압 & 관절염

Special dinner for family 온가족을 위해 아빠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

Special Theme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씨앗 나누기** 12 DECEMBER / 2007



Contents



message	Teaching and Training	05
new arrival	매혹적으로 빛나는 얼굴 - 아티스트리 아이, 치크 칼라 & 컴팩트	07
special theme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씨앗 나누기	08

products guide

thanks to beloved	사랑을 전하는 진심어린 마음 한 조각 '선물'	14
	우리가족 겨울철 건강관리, 고혈압 & 관절염	16
	온가족을 위해 아빠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	18
	새문 오메가 3 EPA	20
living	마지막 기회, 겨울애 프로모션	21
	겨울철 실내공기, 우리집은 안전할까?	22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Atmosphere	23
wellness	2007 뉴트리라이트 본사 체험 프로그램	24
nutrilite report	<제12편 뉴트리라이트의 미래>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	26
beauty	트리타지 1주년 기념 캠페인	28
living	리뉴짓 섬유탈취제 Orchard Garden	30
event	2008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샷포로 & 오키나와	31
	2007 에메랄드 포럼, 2007 다이아몬드 세미나, 2007 New 다이아몬드 세미나	32
travel	순백의 낭만과 여유를 찾아 떠나는 샷포로 겨울 여행	34

2007 AMAGRAM_No.191
D E C E M B E R



COVER STORY

2007년도 어느새 다 지나고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마음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함께 뜻 깊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가슴 따뜻한 추억도 잊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Steve Van Andel_Chairman
Doug DeVos_President

Teaching and Training

교육과 훈련으로 성공에 동참하십시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갓 이 사업에 발을 들인 신규회원과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될 지도 모르는 프로스펙트들이 아닐까요? 이들에게 이 사업의 가치를 알려려면 성공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추가 수입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들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은 자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며, 제품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할 때에 비로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신규회원들이 만약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법을 모른다면 성공은 멀어지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운라인에게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히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러분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북미 지역의 온라인 퀵스타 대학(Quixtar University), 중국의 암웨이 차이나 교육 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신규회원을 위한 암웨이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인프리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확고하게 다져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달하십시오. 오늘 이 사업에 동참한 여러분의 파트너가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is business is the new person - the one who joined your business today... and the person that's going to join your business tomorrow. They need to experience success to see the value in this business. And the easiest way for them to do so is by selling our products and making some extra income. But they also need to be shown how. Because success in this business doesn't just happen - it takes hard work, perseverance and understanding of our products.

And new people are willing to put in the work. But if they don't know the way to build their businesses, they're not going to succeed. That's why teaching and training them is so important. It's your special role - teaching your downline how to build balanced, successful businesses.

And you don't have to do it alone, because we're here for you. We have training resources to help you all around the world. There's Quixtar University in North America, Amway China Training Institute in China, Amway Business Seminar in Japan... just to name a few. S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best way to build this business. And then pass it on. The person who joined your business today will thank you.

스티브 밴 앤델 / 암웨이 회장

덕 디보스 / 암웨이·퀵스타 총괄 사장



2007 AMAGRAM_No.191
D E C E M B E R

Contents

business guide

the year of pride	The Year of Pride② 암웨이, 미래를 열어 온 '역사'의 발자취	38
campaign	암웨이와 함께하는 '8초의 기적' 캠페인	40
education advice	현명한 부모되기 가이드⑥ 우리아이 자립심 키워주기	42
tax information	세테크의 눈을 키워라④ 세테크, 새는 틈을 막아야 부자 된다	44
colorful interview	Same Vision, Different Style - IBO 인터뷰	46
notice	암웨이 IBO 멤버십카드 안내	47

news gathering

product news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소개	48
amway news	암웨이의 생생한 최신 소식들	50
ibo plaza news	전국 각 IBO 프라자에서 진행된 이벤트와 다양한 소식들	51
abc news	암웨이 브랜드 센터(ABC)의 새로운 소식들	52
rules of conduct	개인정보 사용 시 유의사항	53

new achievements

interview	다이아몬드 (9월 1일부)	54
recognition	루비/플래티늄/골드 프로듀서/실버 프로듀서 (10월 1일부)	60
schedule	12월 교육일정, ABC 일정표	63

IBO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마그램

아마그램에 대한 IBO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마그램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마그램을 본 후 느낀 소감 등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접속 경로 : ABN→사이버북→아마그램 페이지의 '나의 의견 작성하기' 버튼 클릭

EDITORIAL 발행·편집인 CEO & Publisher 박세준 _ 편집책임 Managing Director 김일산 _ 편집 Editor-in-Chief 박혜영 _ Senior Editor 박혜원 _ 취재 News gathering (주)위컴에드 ART & GRAPHIC 디자인 Design (주)위컴에드 _ 사진 Photograph Bis Studio, 박철영, 일러스트 Illust 임명택, 박원철, 방인영 STYLE 스타일 Styling 심필영 PRINT & OUTPUT 사진재판 Scan & Photo Engraving 명성애드 _ 인쇄 Print 대원문화사, 대영인쇄사 _ 등록번호 서울 라-05179 _ 공급처 한국암웨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성유센터빌딩 (대표전화 : 1588-0080) _ 발행처 (주)위컴에드 _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

※ 본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마그램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O 전용사이트 _ www.abnkorea.co.kr 퍼블릭사이트 _ www.amwaykorea.co.kr

대한민국직접판매협회
KOSA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한국암웨이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회원사입니다.



김대곤 & 최옥수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통해 알게 된 배움과 배품의 가치

“개인적인 꿈을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고 보니 파트너들 생각에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자연스레 저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나의 성공이 타인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일까. 김대곤 & 최옥수 다이아몬드는 이번 핀 성취를 통해 든든한 스폰서, 파트너로서 더욱 많이 배풀어야겠다는 다짐이 새롭다. 하지만 이들은 ‘배품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 짓지는 않았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파트너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미팅에 참석하는 건 이 사업의 기본이죠. 그 다음으로 저희는 ‘독서’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직접적으

**성공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인을 찾아라.
이 거인이 능력을 발휘할 때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는 저희의 성장에, 더 넓게는 파트너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 사업의 장점이 바로 평생 학생처럼 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 꾸준히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었고, 사업자가 되어 열심히 사업을 펼치다 보니 어느새 다이아몬드에 이르게 되었다는 김대곤 & 최옥수 다이아몬드. 암웨이 사업을 만난 후 물 흐르듯 흘러온 이들의 비전 역시 소박하지만 확실하고 명확했다. “첫째로는 아이들에게 뒷받침을 확실히 해 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데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면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저희의 노후를 담당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다 보면 그 다음 목표 역시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③

세계 속에서 더 큰 비전을 펼치겠습니다

낮에는 치과의사로, 저녁에는 암웨이 사업으로 인생을 꽉 채우고 있다는 김성원 다이아몬드는 핀 성취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암웨이 사업과의 인연부터 이야기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4년 전이지만, 지금부터 14년 전인 30대 초반에 처음 사업을 전달 받은 후 제품을 꾸준히 사용했고, 언제든 여건이 되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제대로 매진할 수 있는 때를 찾느라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 뿐 지난 14년 동안 암웨이가 자연스레 삶 속에 녹아 있었다는 김성원 다이아몬드. 그래서인지 그는 다이아몬드 핀의 성취 역시 한 번쯤 거쳐 가야 할 관문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물론, 너무 기쁘죠.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며 가장 기뻐던 순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제

과거를 후회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며 현재에 만족하면 평범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다운라인 파트너가 저를 추월(?)한 순간이었죠. 열정을 다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신의 성취보다 다운라인 파트너의 성취에 더 힘을 얻는다는 그는 암웨이 사업의 수많은 가치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고 한다. “이 사업의 최대 장점은 파트너를 먼저 배려하고 파트너의 성취에서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나눌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한 거고요.” 치과의사는 ‘직업’이지만 암웨이 사업은 ‘꿈’ 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김성원 다이아몬드. 그 중에서도 국제후원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 암웨이 사업을 펼치며 자아를 실현해가겠다는 원대한 비전은 앞서가는 리더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③

김성원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이인숙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수많은 혜택 중 첫째가 ‘좋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이인숙 다이아몬드. 그는 특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다고 한다. “흔히 ‘소중한 사람’ 이라고 하면 타인부터 떠올리지 자기 자신을 끔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갖거나 존중하는 법을 잘 몰라서겠죠.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한 후에야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을까. 이인숙 다이아몬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다양성도 인정할 줄 아는 포용하는 리더였다. “사실,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사업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인간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지만 행운 역시 공짜는 아니다.

세상은 목표가 있는 자에게만 길을 비켜주기 때문이다.

록 파트너들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 개성에 따른 사업의 속도 역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이렇듯 사람에 대해 느긋한 그의 태도는 사업을 하며 닥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 않아 걱정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걱정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성격과 함께 배움에 대한 호기심 역시 암웨이 사업을 끝가려는 힘이라는 이인숙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에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한다. “국가나 인종, 언어를 뛰어 넘어 암웨이 사업을 통해 세계인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모이면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이죠.” ㉔

아낌 없이 베푸는 리더로, 평생의 동반자로

누구나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인정 다이아몬드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범하게 살기엔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던 중 암웨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에 끌려 시작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고민 끝에 선택한 사업이어서일까. 암웨이를 대하는 이인정 다이아몬드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확고해 보였다. “암웨이는 꿈을 이루는 도구인 동시에 엄연한 사업이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적인 측면에도 노력을

성공을 위해서는 꿈과 노력이 필요하다. 꿈은 더 높은 곳을 보게 하고, 노력은 결국 그 곳에 오르게 만들어 준다.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자세는 파트너들을 후원하는 마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절함과 사업의 확신을 심어 주고,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 시작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끊임 없이 베풀어야 하고요.” 친구 같은 스폰서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하는 이인정 다이아몬드는 스폰서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꼭 움켜 쥐세요.” ㉠

이인정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터)





이준순 & 박정환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삶의 기회

“늘 마음 속으로 그려 보던 순간이어서인지, 막상 핀을 성취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신감 한편에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고요.” 매일 자신들의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다는 이준순 & 박정환 다이아몬드. 때로는 구체적인 비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지만, 꾸준한 사업과 함께 점점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죠. 그렇게 성공을 이미지화 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저희의 하루도 돌아보고 다음 할 일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 성취 이후 이준순 & 박정환 다이아몬드는 한 분 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먼저 용기 내어 나아가야 한다.

분의 파트너들이 성공의 무대에 오르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이아몬드는 새로운 시작이죠. 이 자리에 서고 나니 ‘우리가 그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런 선물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요.” 압웨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은 물론 삶까지 변화시키는 사업이기에 ‘선물’ 이외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이준순 & 박정환 다이아몬드. 꿈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이들은 성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우직함’을 가지라고 말한다. “언제든 난관은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 사업의 가치를 믿고 우직함으로 승부하다 보면 누구든 특별한 삶을 만나게 될 겁니다.” ❸



긍정과 감사를 통해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전업주부로만 13년을 살아서인지 ‘도전’이나 ‘성취’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하네요. 다만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주선옥 다이아몬드. “사실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정 여동생인 스폰서가 3년 반 동안 저희를 설득한 결과죠. 저희 역시 부업을 찾고 있었기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업 개념으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여 이제는 ‘암웨이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큰딸을 유학까지 보내게 되었다는 주선옥 & 최재윤 다이아몬드. 이들은 자신들보다 파트너들이 힘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후에 손을 내밀어야 신도 나를 도울 것이다.**

어하던 순간에 더 마음 아팠다는 말로 지난 날을 회상했다. “보상이 큰 사업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시작했기에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파트너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볼 때는 제 일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고비를 넘겨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함께 고민하며 진심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지금 자신들의 성취감을 만끽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는 주선옥 & 최재윤 다이아몬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를 믿고 힘이 되어 주시는 파트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트너들 모두의 성취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a

주선옥 & 최재윤 |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New Achievements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최화연 & 이규상 충북 청주시 / 한국암웨이 BO & 벤처기업운영

암웨이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더군요. 이 사업은 제가 가진 잠재력을 키워주고, 제 꿈과 함께 파트너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각과 깊은 사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이번에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며 '나를 낫추는 순간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암웨이아말로 '꿈을 이뤄주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항상 격려와 칭찬으로 힘을 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오류로 인해 재게재 됩니다.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RUBY



2007년 10월 1일부



문보영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사진 오류로 인해 재게재 됩니다.



전선희
인천 서구
한국암웨이 BO



손은미 & 강필만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경숙
서울 강남구
주부



정현아
경남 마산시
피아노레슨



정혜인
대전 대덕구
한국암웨이 BO



강순금 & 강한중
부산 수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2007년 9월 1일부



권은경 & 김현철
부산 금정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이미란 & 임희택
충남 천안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홍다령 & 최태원
경기 양평군
미술강사 & 인테리어

2007년 8월 1일부



황유진 & 전한제
부산 부산진구
자영업



김효석
서울 관악구
자영업



권순영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BO



김경숙 & 노현중
경기 고양시
자영업 & 회사원



김남순 & 황성진
경기 광주시
한국암웨이 BO & 학원운영



김민주 & 이재경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영안 & 임복미
서울 금천구
자영업 & 간호사



김경화 & 조대용
광주 북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은정 & 최인근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진희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김현자 & 복영오
충남 서산시
한국암웨이 BO & 개인택시



김희선
경북 칠곡군
한국암웨이 BO



도민숙 & 어만수
서울 서대문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류희국 & 아국경
경북 구미시
미술강사 & 한국암웨이 BO



배선미 & 최원국
경남 사천시
음악학원운영



송유진 & 강태용
전북 진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송혜정 & 심대용
광주 광산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신판재 & 김경희
경기 고양시
회사원



오미경
전남 여수시
주부



오수미
경기 군포시
한국암웨이 BO



아수민 & 박광민
부산 수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영심 & 김경기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아복자 & 김병식
서울 광진구
주부 & 자영업



안배수
서울 마포구
자영업



정길숙 & 이상만
대전 동구
자영업



최숙영
경남 거제시
주부



표은영
대전 중구
회사원

PLATINUM

고소옥 울산 중구 / 한국암웨이 BO
윤소영 서울 구로구 / 방송인
정명숙 서울 강북구 / 회사원

2007년 9월 1일부
김봉곤 경기 부천시 / 한국암웨이 BO

RECOGNITION

GOLD PRODUCER



2007년 10월 1일부터

강승의	김숙자 & 이윤규	김은주 & 유원희	남도호	방정자	서종숙 & 김익곤	유영희 & 서동호	이재숙	한경혜 & 임성규
곽민화 & 이한정	김숙희 & 한동윤	김은희	문우정 & 유익철	배소련	석옥희	윤정희 & 송윤세	이혜정	한해경 & 한상철
구경희 & 김성진	김소옥	김민정	박영진	배인영	손미경	이명심 & 조경훈	장병천	허정희
권미정	김승신 & 정만호	김정경	박영애 & 한승준	배주희	오지현	이상은 & 김한성	조연옥 & 추연태	황미애
김상순 & 김려장	김영주	김정녀	박용우	서경희	오창덕	이영규	최용희	황수정
김선기	김영진 & 유지희	김희정	박지혜	서소희	윤숙영 & 김정열	이영자	최희자	

SILVER PRODUCER



2007년 10월 1일부터

김광문	김분선	김태희	박미영	성원희	윤연경	임병창 & 남효임	조상희 & 이선영	최한옥 & 염희경
김기량	김석원	김필숙	박미희 & 장성천	성윤정	윤영자 & 이은선	임상빈	조선희 & 이철원	최향자
강성호	김선자	김하상	박민규	손미연	윤지영	임영희	조선희 & 이동권	최현숙
강영선	김성연	김한영 & 박춘선	박선영	손병남	이근혜	임옥선 & 박재성	조숙한	최현희
강윤희	김성준	김현성 & 김정은	박상배 & 최항미	손정아	이금선	임유연	조수미 & 황태근	편정숙
강인석 & 이경희	김수임	김현주	박성완	손혜영 & 박승관	이금자	임홍섭	조연숙	하미령
강정렬	김양애 & 노영근	김현지	박수일	신동철	이남희 & 박성기	장경옥	조영래	하미애
강정미	김연순	김형진	박시정	신명애	이대진	장명희 & 진재형	조은영	한상일 & 손명수
견은미	김영민	김해련	박유미	신소식 & 이혜숙	이상선	장명희	조정순 & 한성우	한유진
고은숙 & 허영	김영성 & 안민자	김홍열	박은경	신영희	이수권	정미숙	조정훈	한정문
고인숙	김영숙	김효숙	박은영 & 송채동	심효돈	이소숙	정미화	조해련	한정은
고진영	김영아	김효중	박인선	안두동	이소옥 & 한선현	장정화	조희주	한정연
공옥순	김영창	나수영	박재광	안상희 & 박성호	이순정	장정숙	주상철	허오영
공지우 & 이성현	김영호	나은주 & 염동현	박재호	안성의	이영숙	장지훈	주용식	허수임
구미숙	김영희	나희정	박정숙 & 김희철	안수영	이영희	전상현 & 이혜자	주철	허윤희 & 서두원
구분희	김와순	남경희 & 박창운	박정애	안윤경	이용구	전은호	주희미 & 김주한	허연오
구은주	김유자	남영주 & 김창희	박정연 & 조영상	안윤기	이원기	전진오	주현희	허혜경
권도윤 & 고용강	김은숙	남정이 & 이창현	박지혜	안태정	이유진	정구영	지성규 & 최효연	홍성이 & 윤경환
권상미	김은숙 & 박준호	남희정 & 오용교	박진영	안민정	이윤분	정남순	지성애	홍수연 & 김성열
권성수 & 최희정	김은정	노건호	빙주연	양범용	이윤정	정다진	차용식	홍순기
권수연	김은정 & 정인포	노규자	배현순	양은정 & 신동훈	이은경	정미리	채두영 & 류은옥	홍승희
권오현	김익진	노성영	백선옥	오킨소	이은서	정미현	천현진	홍은숙 & 이종동
권좌근	김민경 & 문정규	노수란 & 이도훈	백승원	오갑희	이은정	정미현	최경민 & 한정식	홍혜미
김경옥 & 박현지	김지연	노영미 & 옥진식	백정진	오경자	이은주	정민식	최계순	
김경희 & 김정명	김재호 & 차현희	류은상 & 이정림	변영숙	오봉진	이은하	정복연	최관희	2007년 2월 1일부터
김도연	김정수 & 이태순	문경득	서미영 & 김창용	오영애 & 송경윤	이임선	정상락 & 박해연	최나리	이은희 & 최종진
김문희	김정열	문희영	서민수	우성진	이재금	정수진 & 조철희	최덕순 & 백선중	
김미경	김정호 & 유옥미	문희철	서은미	유미화	이재철	정숙란	최미정	
김미라	김주현	민소영	서재민	유순자	이정숙	정승은	최미향 & 신진호	
김미란	김지향	민판식	서진영 & 김영민	유승경	이정자	정은경	최비용	
김미선	김지현	박경아 & 이준필	서해숙	유연형 & 지시욱	이종일 & 임미순	정은정	최성희	
김미연 & 오동민	김진현	박계현 & 김택중	서현경 & 강윤성	유인애	이준규	정은주 & 김주환	최영락	
김미영 & 이성호	김진태	박근중 & 정경미	서현주	유재선 & 이종재	이지아	정종학	최영자	
김미자	김형민 & 조현주	박기선 & 홍성실	설길순	유정미 & 김종훈	이해동	정주연	최영자	
김민숙 & 안연순	김초희	박려자	성기덕	유현주 & 기우령	이현옥	정주희	최은자	
김민아	김충근	박영수	상백훈	윤미자 & 김형모	이해용 & 김교	정지영 & 손광성	최주연	
김봉남	김태기	박미숙	성영희	윤성윤 & 여창업	임범호 & 전선화	조경애	최진화	

※ 레코그나선에 실릴 사진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삼유센터빌딩 8층 한국암웨이 아마그램 담당자 앞)과 이메일(amagram@amwaykorea.co.kr)을 통해 접수합니다.